

종합·해설

범여권 '孫 잡자' 물밑 접촉

김효석, 신지식인협회 참석 대화 나뉘 정동영 "적절한 시기에 만나 뵈 생각"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향한 범여권 제정파들의 '접근'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결론은 '불가근 불가원'을 표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으로는 손 전 지사와 직·간접적인 형태로 접촉을 시도하며 연대의 틀을 모색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범여권 통합논의의 한 축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의 행보다. 김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지식인협회에 참석해 손 전지사와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 전지사를 직접 거명하며 '중도개혁통합신당'에 동참하라고 공개적 제안을 했던 인물.

김 원내대표는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손 전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만나면 '어떻게 생각 말라. 외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격려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주변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정당 재선그룹과 정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을 상대로 '범여권 통합 교섭단체' 구성 협상을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도 그의 연



연예인이 도와 주세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대중문화에 출연복지회 출범식에 참석,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선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 손학규 인사로 분류되는 김부겸 의원의 움직임도 시선을 끌고 있다. 우리당 대통령신당추진위원인 김 의원은 손

전 지사와의 교감설이 돌고 있는 '전진코리야'에 김숙이 관여해온데다 개인적으로도 손 전지사와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 사이여서 친분관계가 각별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과 민주당 김 원

내대표는 자주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손 전지사와의 연대문제에 대해 일정한 '교감'을 나누고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두 사람은 우리당 재선그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의 '동시탈당에 의한 통합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 역시 손 전지사와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소속의 한 의원은 "모임내 통합추진위원 일부가 손 전지사와 간접적으로 접촉해 서로의 의사를 타진해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은 이날 강화도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손 전지사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상승보합'의 관계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후문이다.

여기에 대선주자군에서는 정동영 전의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정 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손 전지사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뵈 생각"이라며 "배제와 상대방에 대한 규정, 이런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정경배,김근태 의원이 손 전지사에 대해 비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과는 판별된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장영달 원내대표(네번째) 등 지도부가 28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대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광주·전남 결의대회에서 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다짐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盧대통령 안희정 대북 접촉 지시

靑 공식 확인... 이호철 "대북특사 이해찬 거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작년 10월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리호남 참사를 만난 것은 남측과 접촉하고 싶다는 북측의 의사를 보고받은 노 대통령에게 진의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씨는 10월 방북 한 달 전인 9월에도 일련의 투르토 북측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진본이 있던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 A씨를 베이징에 대신 보내 역시 리 참사와 접촉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북한 핵실험 이후 두 주간지 기자로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만 6자 회담 북측 의사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으며, 북한이 특사를 원

한다는 내용의 일종의 보고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런 보고서 말고라도 여러 투르토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하고자 한다는 얘기가 당시 들었다"며 "즉시 노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했고 그 채널이 신뢰성이 있는 건지, 북한의 생각이 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안씨와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10월 20일 베이징에서 리 참사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안씨의 리 참사 접촉이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을 청와대까지 알린 것은 처음이다. 안씨는 기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노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에게 물어보라"며 대답

을 피했고, 이 실장은 그간 언론접촉을 자제해 왔다.

이 실장은 "이 과정에서 나와 안씨, 이 의원은 북한이 실제로 특사를 요구할 경우 실무적으로 누가 가는 것이 좋은 지를 논의했으며, 대통령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가 거론됐다"고 말해 지난해 10월부터 이전 총리의 대북특사 파견이 검토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그러나 10월 당시 베이징 접촉이 남북정상회담 논의와 깊이 관련됐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는 북한이 10월9일 핵실험을 한 직후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던 때로, 그런 국면에서 정상회담을 꺼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며 "북한의 6자회담 북측 의사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 의사 여부가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선관위 "발의 전 활동 사전운동 아니다" 한·민주 "홍보 방치는 선관위 직무유기"

'개헌 홍보활동' 위법성 공방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사업 공론화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을 벌였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원용해 "현행 국민투표법상 개헌안이 발의, 공고되기 전에 행하는 활동은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권경석 의원은 "누가 봐도 대통령이 개헌 발의의 수순을 밟는 게 명백한데 개헌 홍보활동을 방치는 건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적극적 예

방대책을 펴지 않고 눈치보며 적당히 현정부를 따라가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선관위가 개헌안 발의 이전 홍보활동도 사전투표 운동으로 보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을 국회에 낸 점을 들어 "정부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다면 선관위가 정부에 주의를 주거나 자체를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개헌 시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추진지원단이 설명회를 준비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사전투표운동이라고 하는 건 여론을 오도하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韓-사우디·쿠웨이트 정상회담은 두번째" 정부, '첫 회담' 발표는 잘못

노무현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쿠웨이트 정상과의 회담이 양국 수교 이후 처음이라는 청와대 등의 발표는 잘못된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유족들과 외교부에 따르면 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이던 1980년 5월1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같은 달 14일 쿠웨이트 국왕과도 정상회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4일 한-사우디 정상회담과 관련해 낸 보도자료에서 "양국 정상회담은 1962년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업씨 보선 입후보 전라도민이 막아야" 박찬중 전 의원 주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의 4·25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민주당의 전라공천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박찬중 전 의원이 28일 "전라도민이 나서서 홍업씨의 입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전라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후광(後廣) 김대중 선생께 홍업씨의 입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건의드렸으나 민주당이 공천심정서를 내지도 않은 홍업씨를 전라공천한 이상 전라도민이 나서서 후광 선생을 설득해 입후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재보선 한나라 vs 反한나라

우리·민주, 국회의원 후보 안낸 지역 反한나라 지지

4·25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의 압목적인 연합공천 분위기에 속해 한나라당 대 반 한나라당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전남 무안·신안과 대전 서울은 각기 민주당, 국민중심당 후보가 우세한 국면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대전 서울은 각기 민주당, 국민중심당 후보가 우세한 국면을 보이기도 했다.

28일 광주를 방문한 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4·25 무안·신안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결정할 생각이지만 현 시점에서(우리당)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전남 무안·신안을 제외 한 대전 서울과 경기도 화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당이 선전한다면 4·25 재보궐 선거 결과는 대통합에 단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도에서 광주지역 국회 담당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화성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는 유력 후보를 찾기 어려워 반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지원키로 결정했다"며 "대전 서구 을도 후보를 내지 않고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중심당도 대전 서울을 제외한 4·25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州日報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인·영업·모임·모집
사설공고·매입·부동산
매매·임대·전세·분양

☎(062)220-0524
☎직통:(062)227-9600
FAX:227-9500

정정 공고

번호 2007년 3월 14일자 (주)고을건설의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문 중 '건설업에 관한 자선금 관리의무 등 전부를 포괄 양도양수'를 '건설업에 관한 건축공사업을 양도양수'로 '양수인의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황송동 974-11'를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2-2번지 1029호'로 정정공고합니다.

상속한정승인공고

밤 신형중(441102-165421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험에 따른 제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제권자 또는 승증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월까지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제권 또는 승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변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년 단 69
공 고 인: 조원현, 신광호, 신대용, 신방호, 신의창, 신미, 신선아, 신병희
한정승인수리일:2007. 3. 23
공고기간:2007. 3. 29~5. 28
연 락 처: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482 신대용(011-647-4372)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 개강일시 : 4. 19(목) 09:30
- 모집기간 : 3. 20(화) ~ 4. 19(목)
- 수업기간 : 4월~8월(4개월 15주)
- 수 강 료 : 210,000

모집인원:1단계 오전반 20명(선착순)

수업시간
·(매주 화, 목)09:30 ~ 12:30(3강좌)

수료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명)
-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해당과목)
- 각 한문학원 감사 추천
-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감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대한민국 토양사 700원서비스 *미성년자 상담불가 *불전전신고 ☎041)551-8040 (상담료 30초당 전화)

달마운세 ☎060-700-8040

이용방법 ☎060-700-8040권투 1번을 누르면 바로상담 2번 지정상담

신년운세·사주·궁합·속궁합·운세·사업·재물·승진·시험·종합운세

5분은 무료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오랜전통과 정중함을 자랑하는 차별화된 달마운세는 정확하고 속 시원한 답을 드립니다.

* 대한민국 운세상담 대표전화 *

64 윤당	77 불광산	68 강양	52 윤정
65 윤당	78 불광산	69 강양	53 윤정
71 우현	79 천운	70 지연	54 윤정
66 고당	80 고당	71 우현	55 지운
67 고당	81 고당	72 지연	56 지운
68 고당	82 고당	73 지연	57 지운
69 고당	83 고당	74 지연	58 지운
70 고당	84 고당	75 지연	59 지운

교정직특채

시험 5월 13일

1. 선발예정인원 : 총 360명 (남자 329명, 여자 31명)
2. 시험 과 목 :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개론
3.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정수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4.9.(월) ~ 4.13.(금)	필기시험	5.7.(월)	5.13.(일)	5.18.(금)
	면접시험	5.18.(금)	5.22.(화)	5.25.(금)

4. 메가합격시간표(현재이론반진행중 3월29일개강)

구 분	이론정리반(진행중)		문제풀이반3/31개강	
	목	금	토	일
과 목	교정학	형소법	교정학	형소법
시 간	19 : 00-22 : 00		14 : 00-19 : 00	

최웅/김철진 교수팀 특별초빙

메가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26-5500